

美 연방정부, 위해제품 데이터베이스 개설

소비자와 제조업체 양측 입장 나타내며 제조업체 코멘트 가능

미국 연방정부는 제품안전에 대한 불만 정보를 공유하는 위해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유아복, 가전제품 등 제품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을 모아놓은 중앙 연방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다면 유아용 난간침대에서 떨어져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

6년 전 9개월 된 아들을 잃은 Johns는 측면 난간이 분리되는 결함으로 침대에서 아이가 떨어진 사고를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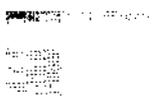
비극적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와 소비자, 전문가들은 유아침대, 어린이용 높이조절

▲ 미국의 소비자들은 제품 안전 정보를 담은 정부 공식 데이터베이스의 개설을 기다리고 있다.

의자, 실내난방기, 토스터기 등 생활제품으로 발생하는 상해와 악영향에 대한 불만을 공유할 수 있는 정부 공식 데이터베이스(SaferProducts.gov)의 개설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감독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편적으로 인기가 별로 없다. 제조업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보 과잉 웹사이트는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확하며 오해하기 쉬운 보고로 가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국회의원은 지난 주 의회에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지원될 추가자금 지원 보류에 관한 개정안을 지지했으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다. 민주당 상원의 개정안에 대한 전망은 확실치 않다.

정확성을 보장하는 보호장치 마련

누구나 SaferProducts.gov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상해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



다. 상해의 원인이 되는 잠재결함 혹은 추정되는 상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꼭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 직원은 동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기본정보(이름, 연락처, 제품, 상해, 날짜)가 정확한지 검토하며, 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에 게시하기 전 개인정보를 깨끗이 정리한다. 해당 제조업체는 접수된 불만을 통보받으며, 보고서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 대응기간으로 10일을 갖게 된다. 무언가 빠졌거나 진실하지 않은 정보가 담긴 보고서는 발간될 수 없다고 CPSC는 말한다.

Bob Adler(민주당 데이터베이스 지지자) CPSC위원은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진한다. 제조업체는 불만에 대해 반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거짓이라고 판명된 정보를 제거하거나 수정할 것이라고 진했다.

Inez Tenenbaum CPSC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상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제조업체 양측의 주장을 밝힐 수 있고 제조업체가 코멘트를 달 수도 있는 유일한 곳인 연방 데이터베이스"라는 점을 강조했다.

Pompeo와 반대 측은 이 데이터베이스로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수 있고, 판매에 타격을 주며,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되기 전 누가 상해보고서와 필수 세부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CPSC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논쟁

또 다른 논쟁은 CPSC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에 관한 것이다. 2008년 제품안전법에 의거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완구에 함유된 납과 유해물질 제거를 목표로 하는데, 지난 4월 CPSC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으로 약 2,000만 달러가 쓰였다고 추정했다. 이는 컴퓨터시스템의 주요 기술 업그레이드 등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주 소비자안전 관련 청문회에서 Tenenbaum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 현재까지 300만 달러만 들었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은 데이터베이스와 기술개선을 위한 예산계획으로 2,900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Tenenbaum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 300만 달러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녀는 시장 보고와 응급실 방문 자료를 수집하는 컴퓨터와 같은 기타 기관의 데이터시스템도 지원하는 기술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000만 달러를 썼다고 언급했다.



2008년 제품안전법에 의거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완구에 함유된 납과 유해물질 제거를 목표로 했다.